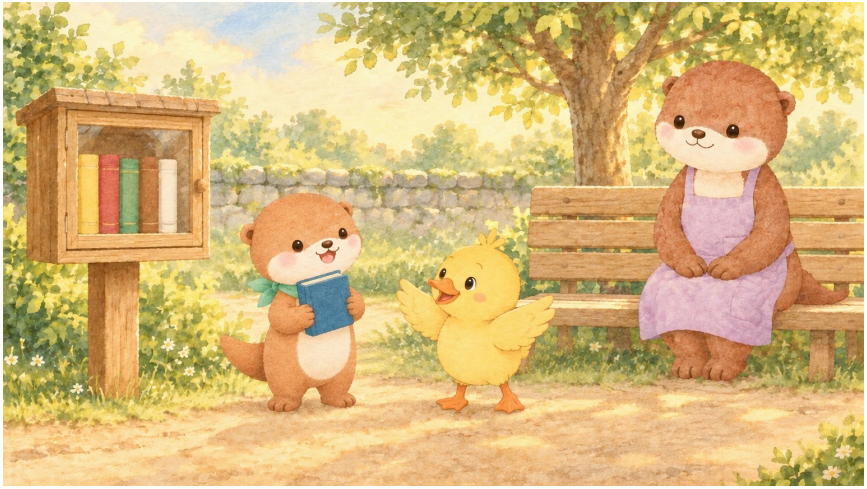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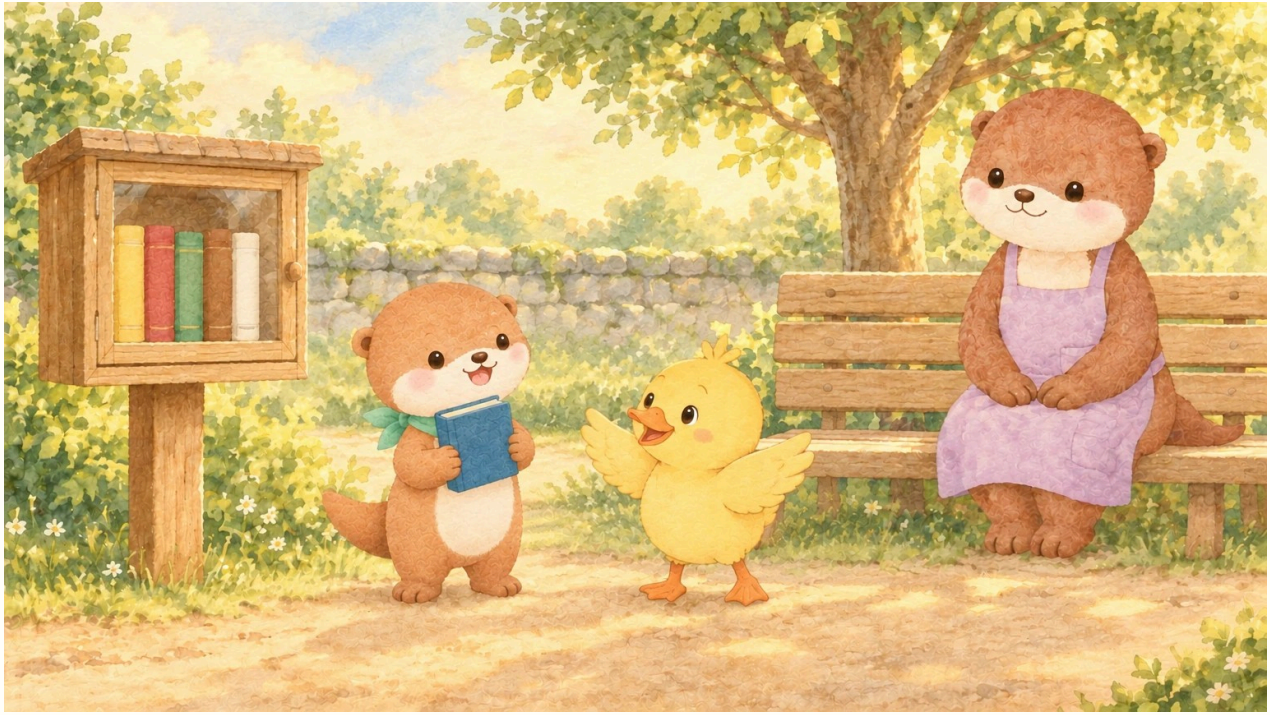
ELIO'S LITTLE DISCOVERIES

Read It Again?

또 읽을까? · 비유 표현 다시 읽기



12세 · Day 058 · 함께 읽기 · 4장면



“I like knowing what will happen,” said Elio. “It feels like visiting an old friend.” “And I like not knowing,” said Bori. “It feels like opening a present.”



Mum was resting on the bench, listening. “Have either of you tried it the other way?” she asked. Elio and Bori looked at each other. Neither of them had.



So they swapped. Bori chose a book for Elio, a yellow one he had never opened. Elio gave Bori his old blue book. They each took one end of the bench and began.



The next afternoon, Elio sighed over the yellow book. “I don’t know anyone in the book yet,” he said. “It’s like walking into a room full of strangers.”

함께 발견해요

읽기 전

표지의 작은 책 상자를 보고, 아이가 여러 번 읽은 책과 아직 펼치지 않은 책을 하나씩 떠올려 봐요.

함께 읽을 때

엘리오와 보리가 각자의 이유를 비유로 말하는 장면(오랜 친구, 선물)에서 잠깐 멈추고 그 뜻을 함께 이야기해요.

생각 나누기

책을 바꿔 읽은 뒤 두 사람은 무엇을 새로 알게 되었나요? 어느 쪽이 맞는지 정하지 않고 각자의 근거를 찾아봐요.

생활에서

다시 읽고 싶은 책 한 권과 새로 읽고 싶은 책 한 권을 골라 봐요. 많이 읽어야 한다는 약속은 하지 않아요.

오늘의 그림과 이야기를 함께 즐기는 과정이에요. 혼자 읽기나 말하기를 시험하지 않아요.

ELIO original story · 제1판
교육자·보호자·아이의 사용 검토는 별도로 필요합니다.